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참된 회개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1.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1~4절)

호세아 6장 1~3절은 호세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설교자와 부흥사들이 이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호세아가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호세아의 설교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반응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낮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쉽게 없어져 버렸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금방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가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회개 속에 자신들의 죄의 고백과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결단이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좋은 말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구호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결심보다는 작은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5~7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제사와 번제도 드렸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7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헌금이 들려지고, 큰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3.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8~10절)

8절에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길르앗라못이라는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피의 보복자를 피해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처입니다. 도피성은 죄인에게 안식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피성이 있던 길르앗에 피 발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상처입고 죽어가는 영혼과 가정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처럼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 온갖 죄악으로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6)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8(월)	6/29(화)	6/30(수)	7/1(목)	7/2(금)	7/3(토)	7/4(주일)
욘 41-42, 시 1-5	시 6-13	시 14-19	시 20-26	시 27-33	시 34-37	시 38-43

QT

이번 주 QT 말씀

6/28(월)	6/29(화)	6/30(수)	7/1(목)	7/2(금)	7/3(토)	7/4(주일)
출 32:1-14	출 32:15-24	출 32:25-35	출 33:1-11	출 33:12-23	출 34:1-9	출 34:10-26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은혜를 받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3. 각자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시키고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